# κόκκος 6

2019 JUN VOL. 207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초청 총장 리셉션을 마친 후 초청받은 학우와 초청자 , 행사 진행을 도운 스탭진과 교직원들이 구원을 염원하며 일제히 손하트를 날리고 있다 . ( 관련기사 3 면 )

#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4 학년 주관예배'

## 학우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확인

▲ '4 학년 주관예배 ' 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유현 학우

'4 학년 주관예배 ' 가 27 일부터 2 주간 진행되고 있다 . 주관예배는 성서학과 학우들이 말씀과 기도 , 사회를 담당하였고 간증은 타학과 학우가 단상에 올랐다 .

반우형 학우 ( 성서 4) 가 29 일 ( 수 ) ' 빛나는 조연 , 바나바 '( 행 11:19~2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안디옥은 동서양문화가 혼재된 이방인의 상징적 도시다 . 바나바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조연역을 감당했다 . 그에게서 주연은 성령님 한 분이다 . 반 학우는 과거 자신이 주연인줄 알았지만 4 년의 연단을 거친 지금은 조연의 위치로 서게 되었다 .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교수님과 우리 공동체의 간절함이 더해진 결과다 . 나를 세워주실 성령님의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커가는 성서공동체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

이인재 학우 ( 사복 4) 는 간증을 통해 어릴 적부터 앓아온 선천적 증후군의 질병을 스스로 드러냈다 . 육체 아픔보다 주변 냉대와 따돌림에 마음이 더 아팠지만 자폐아동들을 도와주면서부터 큰 위로를 경험한다 . 캠프 참여를 통해 내 아픔이 다른 이에게 커다란 위안이 됨을 느끼며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였다 . 그 중심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

말씀과 간증을 한 학우들은 " 강단에 서야할 날자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무거워진다 . 스승들 앞이라서 더 그렇고 친구들 시선도 의식해야 하고 후배들도 만만치 않았다 ." 며 그 간의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

4 학년 학우들의 설교는 명료했고 복음적이었다 . 간증은 진솔한 삶의 내면을 군더더기 없이 드러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서사시를 이루었다 . 성서공동체 안에서 4 년은 변함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동안에 쉬임없이 학우들을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 고전 3:7)

설교 및 간증 학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5 월 27 일 ( 월 )** | 이삭 : 나의 하나님은 ( 시 42:1~11) | 이인재 ( 사복 ) |
| ▲ **5 월 28 일 ( 화 )** | 한글사랑 : 믿음과 관점 ( 민 13:30~33) | 김지하 ( 컴소 ) |
| ▲ **5 월 29 일 ( 수 )** | 반우형 : 빛나는 조연 , 바나바 ( 행 11:19~26) | 송승현 ( 사복 ) |
| ▲ **5 월 30 일 ( 목 )** | 임빛찬 : 마음과 생각 지키기 ( 빌 4:4~7) | 강하늘 ( 사복 ) |
| ▲ **5 월 31 일 ( 금 )** | 전재욱 : 든든한 목표 ( 살전 5:16~18) | 김인우 ( 컴소 ) |
| ▲ **6 월 03 일 ( 월 )** | 박은지 : 보냄을 받은 자들 ( 눅 9:1~9) | 강제원 ( 간호 ) |
| ▲ **6 월 04 일 ( 화 )** | 김유현 : 착각 ( 막 10:17~31) | 문수빈 ( 간호 ) |
| ▲ **6 월 05 일 ( 수 )** | 임주영 : 죄인에서 의인으로 ( 롬 3:23~24) | 안형모 ( 컴소 ) |
| ▲ **6 월 07 일 ( 금 )** | 전채원 : 뚝배기 ( 행 1:6~11) | 최송희 ( 간호 ) |

# 미니설교 ' 정결하게 하소서 ' ( 시편 51:1-7)

**박민수 목사(교목)**

그리스도인은 ' 하나님의 자녀 ' 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다 .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이 도를 넘어설 때 , ' 완벽함 ' 이라는 친구가 우리를 유혹한다 .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람이기에 실수 앞에서 한 없이 무너진다 . 실수와 스스로 만든 상처가 반복되면 ' 회피 ' 의 습관이 생겨 하나님의 손을 놓기 일쑤다 .

다윗은 선지자가 지적한 자신의 죄 앞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 자신이 죄를 인정했다 .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인정했다 .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도 고백한다 . 그러면서 간구한다 . "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 우슬초는 유월절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도구이다 .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그 은혜를 곱씹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 .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다 .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자 .

## ‘어떠한 외부 세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

### 강우정 총장 , 개교 67 주년 기념예배서

▲ 말씀을 전하는 김희태 총동문회장

개교 67 주년 감사예배가 13 일 오전 11 시 로고스홀에서 유정선 교목실장 사회로 개최되었다 .

총동문회장 (26 회 ) 김희태 목사가 ' 힘써 여호와를 알자 ' ( 호 6:1~3)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토록 역사하고 계신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에 의해서 ,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라고 말했다 . 그는 " 우리대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를 잘 구별하고 순종해 온 대학이다 .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자 " 고 강조했다 .

강우정 총장은 축사에서 " 하나님은 우리대학을 외부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주셨다 . 혁신시대의 우리에게 최고의 혁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한 대학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 말씀을 기반으로 전공교육 및 일립교육을 지속하며 어떠한 압제 세력이 닥쳐와도 부러질지언정 결코 구부러지지 않는 당당함을 견지해 갈 것 " 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에 앞서 이성화 목사 (35 회 , 부천서문교회 ) 가 변질되지 않고 설립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축복의 대학이 되기를 기도하고 국용환 목사 (24 회 , 주향남교회 ) 는 주님 가르침을 온전히 세우고 따르는 밀알의 후예가 되어줄 것을 축사하였다 . 기념 예배는 남정부 (24 회 ) 목사 축도로 마쳤다 . 예배에는 동문과 재학생 및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부설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개교기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

## ‘홈커밍데이’ 반갑습니다 선후배님 !

### 학교에 감사 , 자긍심 갖고 기도할 것

▲ 동문들이 단체복을 입고서 홈커밍데이를 기념하였다 .

개교 67 주년을 맞아 총동문회와 대외협력실이 기획한 동문초청 홈커밍데이가 13 일 천마홀에서 진행되었다 . 김희태 총동문회장은 " 각처에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에 헌신해 온 동문 모두를 환영한다 . 밀알정신을 전파하는 귀한 성서공동체로서 후배양성과 학교발전에 힘써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홈커밍데이에는 동문 50 여명이 참석하였고 준비된 단체 T 셔츠를 착용 후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

손주창 (23 회 ) 동문이 " 우리 각자가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며 후배들의 영어찬양대회가 매우 신선하다 " 고 칭찬해 주었다 . 이병철 (37 회 ) 동문은 " 춘천에 오면 닭갈비와 막국수를 대접하겠노라며 학교와 동문들이 지속적인 소통 " 을 강조했다 . 문정한 (44 회 ) 동문도 " 밀알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에 감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재학 중 사마리아 반주자로 활약했다는 이선영 (44 회 ) 동문은 " 학교소식지로 근황을 접하고 있다며 학교에 애정을 갖고 계속 기도할 것 " 이라고 말하였다 .

개교 67 년과 함께 펼쳐진 홈커밍데이에서는 정도량 (7 회 ) 동문이 최고참 선배로 , 반면에 표길홍 (53 회 ) 동문이 제일 아래 후배로 확인되었다 . 이번 홈커밍데이는 학교 졸업 40 년 , 30 년 그리고 20 년 , 10 년 된 동문을 특별히 초청하며 의미를 더했다 . 동문들은 3 백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후원해 주었다 . 대외협력실은 선후배간 우의와 결속을 높여주는 이 행사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 개교 67 주년 밀알축제 , 주제 : '청춘휴게소'

### 예음총학 ,
### 쉼과 놀이 – 위로와 재충전의 한 때

▲ 장덕철 그룹이 열창하고 있다 .

개교 67 주년을 축하하는 예음총학의 밀알축제가 13 일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축제의 주제는 ' 청춘휴게소 '. 연이은 취업난과 삶의 고민을 안고 사는 학우들의 짐을 잠시나마 훌훌 털고 쉼과 놀이를 통해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되도록 기획하였다 .

기념예배를 끝마친 후 낮은 마당과 잔디밭 주변으로 각 동아리와 학회원들이 준비한 먹거리와 각종 즐길 거리가 펼쳐졌다 .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초청 연예인 .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높았는데 인디그룹에서 입증된 실력파 감성보컬 트리오 장덕철 그룹이 무대에 오르자 격한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 ' 그날처럼 ' 과 ' 알았다면 ' 등 힛트곡을 연이어 열창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 학우들도 함께 부르며 열기를 발산하는 등 5 월의 신록아래서 청춘의 신선함을 만끽하였다 . 이에 앞서 각 학과별로 세미나가 오전 9 시부터 개최돼 전공과 관련된 초청강사의 풍부한 지식을 충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

캠퍼스를 빼꼭이 채운 천막 부스에는 솜사탕 등 간식류와 달콤한 떡볶이 , 파전 , 햄버거 , 만두 , 음료 , 아이스크림류가 침샘을 자극했다 . 고승태홀에 마련된 게임 존과 남자 학우들의 파워 펀치대결하기를 비롯해 노래방에도 학우들의 발걸음이 오갔다 . 춤과 노래의 장기자랑과 토크 콘서트는 친구의 색다른 면을 보게 하였으며 개설된 플리마켓도 쏠쏠한 구경거리를 제공해 줬다 .

## 학부모기도회 주최 , 개교기념일 바자회

### 수익금 1 백만 원 , 승강기 교체 후원

▲ 바자회 장터의 모습

학부모기도회가 ( 회장 장인순 ) 개교기념일 (13 일 ) 에 교내에서 중고물품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 1 백만 원을 승강기 교체 기금으로 전액 후원하였다 .

학부모들은 정문 근처에서 중고 의류와 가방 외 다양한 생필품과 생활도구를 저렴하게 판매했다 . 물건을 고르던 한 주민은 학교 학부모들이 준비한 바자회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 자신도 학부모인데 다음 기회에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

장인순 회장은 "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제쳐두고 수고해 준 덕분에 가능하였다 .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더해져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발전에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란다 " 며 참여해 준 학부모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학부모 기도회 모임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 시 복음관 2 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 우리대학을 다니는 학우의 모든 학부모가 참여 가능하다 .

문의 교목실 02–950–5446

## 정도량 목사 후원금 1 백만 원

### 모교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정도량 (7 회 ) 목사가 개교기념일 개최된 홈커밍데이에서 학교 발전기부금 1 백만 원을 후원했다 . 정 목사는 " 평소 모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소망하였다 . 후배들의 학업과 학교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 " 며 동문들이 학교를 향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길 소망하였다 . 정도량 목사는 이날 참석한 50 여명의 동문 중에서 가장 최고참 선배이다 .

정 목사는 지난 2006 년 중앙성서교회 담임목사직을 은퇴하고 러시아지역 일대에서 협력선교사로 헌신해 왔고 국내에서는 성서선교회 소속 형제교회를 돕는 목회를 지속하고 있다 .

## 친구야 !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드리자

### 친구가 친구를 초청
### '초청 , 총장 리셉션'

▲ 뮤지컬 동아리 Calling 팀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열연하고 있다 .

주님을 믿지 않는 교내 학우를 초청해 복음을 안내하는 ' 초청 , 총장 리셉션 ' 이 9 일 오후 6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행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와 선후배를 초청하여 예수 소개와 복음제시 및 교제 순서로 이뤄졌다 .

교목실 임현필 목사는 서신 형식을 통해 "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맞게 해 주는 본질이며 주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생명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지금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에 함께 동참하자 " 고 복음을 증거 하였다 .

리셉션은 도시락 만찬으로 시작하였으며 ' 어린이전도협회 ' 동아리 회원들이 심플한 퀴즈와 촌극 등으로 예수의 위대함을 전하는 무대로 막을 펼쳤다 . 이어서 뮤지컬 동아리 'Calling' 팀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등을 담아 무대에 올렸다 . 화려하진 않았지만 노래와 율동 , 핵심 스토리가 주제와 잘 반영돼 호감을 이끌었다 .

한송이 (64 회 ) 동문은 자신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갈등과 방황의 상처 등을 드러내고 주 안에 속한 자의 축복과 감사를 함께 영위하자고 간증했다 . Q&A 에서는 임현필 목사와 최후경 ( 성서 4) , 한송이 동문이 죄사함의 유효성과 주를 믿게 된 계기 , 목회자의 시각 등을 질문형식으로 주고받았다 .

최민혜 ( 성서 2) 학우는 " 이번 행사에 참여한  친구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 쉽지 않겠지만 진정을 다해 그를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구원초청 행사에는 11 명의 불신 학우가 참여 하였다 .

## 총장 초청 유학생간담회

### "유학기간은 모국복음화의 출발점"

▲ 기미레 수자타 학우가 감사 서신을 낭독하고 있다 .

총장 초청 유학생간담회가 29 일 오후 복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간담회는 유학생의 애로를 듣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기회이다 . 간담회는 도시락 만찬과 자유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

강우정 총장은 "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한국성서대학 자체이다 . 복음전도자가 어떻게 심겨지고 , 양육되고 , 성장해 가는 지를 눈여겨보고 각자 모국에 돌아가 모국 복음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 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 한국 학우들 , 유학생 학우들과 깊은 신앙교제로 통해 네크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 " 이라고 권고했다 . 그는 유학생활의 고달픔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며 참고 이기기를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다 .

유학생회 왕석 회장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보여준 많은 지원책과 관심에 감사함을 나타냈다 . 참석자 학우 대부분이 한국어가 서툴다며 " 한국어 수업반 개설 여부와 학점인정 , 성경졸업고사 지원 및 방학기간중 기숙사 체류 문제 " 등을 건의하였다 . 학비조달에 필요한 교내 알바의 확대 , 시험범위 내 핵심 요약 안내 등도 조심스럽게 주문했다 . 이에 대해 학점인정여부는 사안을 고려해 검토 , 교내 한국어교육원과 연계시켜 수업을 지원하겠으며 성경졸업고사 특강반 개설 등도 약속했다 . 방학기간 생활관 전체가 외부 행사로 비워야 할 때의 대책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하였다 .

네팔 출신의 기미레 수자타 ( 성서 3) 학우는 영어로 서신을 낭독했다 . 자신이 겪어본 "KBU 야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귀하고 특별한 대학 " 이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

간담회에는 김은호 부총장과 유정선 일립교육부장 , 조윤경 전공교육부장 , 김중완 행정본부장과 권경만 기획실장 및 최육렬 평생교육원장과 신지수 입학팀장이 함께 하였다 .

## 성서학과 예배 , 신학생의 정체성 향상을 위해

### 전소희 학우 설교 ,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해답”

1 학기 성서학과 예배가 29 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예배는 신학생으로서 소명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과 결속 및 장차 다가올 교회사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 .

전소희 (4) 학우가 ‘Do you remember'( 전 11:9~12:8)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 전도서는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즐거이 맞으라고 주문한다 . 이것은 곧 현재의 삶에 대한 충성이며 날마다 주어지는 주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경솔히 사용치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 솔로몬은 인생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였다 .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곧 해답이다 .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자 " 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김희정 (3) 학우는 "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주시고 말씀에 순응하고 깨어서 전파하는 순례자로 인도해 줄 것 " 을 기도하였다 . 성서학과 전체예배는 한 학기당 1 회 열리며 지난 2017 년 2 학기 예배를 시작으로 4 회째를 맞고 있다 . 예배의 전 과정은 지난해 세빛학회 임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0 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

## 제 16 회 총장배 영어찬양대회

### 1 등 양명철 팀 (4 명 ) ‘I need you more’

▲ 1 등 팀이 열창하고 있다 . ( 왼쪽부터 양명철 , 김예진 , 이경하 , 양주혜 학우 )

' 제 16 회 총장배 영어찬양대회 ' 가 개교기념일인 지난 5 월 13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총 19 개 팀 (121 명 ) 이 참여를 신청하였고 그중 예선을 거친 최종 8 개 팀이 당일 결선무대에서 실력을 겨뤘다 .

영예의 1 등은 'I need you more' 곡을  부른 양명철 등 4 명에게 수상의 기쁨이 돌아갔다 . 원곡에 담긴 진정성을 호소력 있게 담아 전해주었다는 평이었다 . 김진원 등 3 명의 절제된 호흡과 화음이 잘 묻어난 곡 ' Who am I' 가 2 등에 올랐으며 안소영 등 4 명이 부른 'What a beautiful it is' 가 3 등을 차지하였다 . 박혜진 ( 컴소 1), 박재현 ( 간호 1) 학우가 영어찬양대회의 진행을 맡았다

시상식은 16 일 채플 후 강우정 총장이 수여하였는데 1 등 입상한 팀이 입상곡인 'I need you more' 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

1 등에게는 15 만 마일리지 , 2 등 10 만 , 그리고 3 등 5 만 마일리지가 수여되었다 .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등 : 김예진 ( 성서 3), 양명철 ( 성서 2), 양주혜 , 이경하 ( 성서 1)

2 등 : 김진원 ( 성서 3), 강찬희 , 김지영 ( 성서 2)

3 등 : 김제형 ( 사복 4), 안소영 , 윤예주 ( 성서 3), 이준기 ( 사복 2)

## 1 학기 성경졸업고사 합격률 37.8%

2019 학년도 1 학기 성경졸업고사가  18 일 로고스홀에서 치러졌다 . 이번 시험에는 230 명이 신청하고 그중 217 명이 응시 (94.3%) 했는데 응시자 중 82 명이 합격했다 . 합격률은 37.8% 이며 이는 전년도 1 학기 65.9% 에 비해 하락폭이 컸다 .

4 학년 졸업 예정학우들은 응시자 32 명중 12 명이 합격권에 안착하며 부담감을 떨치게 됐다 . 학년별로 보면 1 학년이 가장 높은 43.5% 로 선배들을 무색케 하였다 . 3 학년 , 4 학년 그리고 2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기 성경졸업고사는 11 월 9 일 치를 예정이다 .

## 박현희 ( 컴소 ) 교수 , 연구과제 선정

### 한국연구재단 , 연구비 1 억 3 천 7 백만 원

**연구제목 :**
**「클라우드부터 엣지컴퓨팅 상에서의 Massive IoT 보안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보안 프로토콜」**

▲ 박현희 교수

박현희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교수가 제안한 연구과제가 한국연구재단의 2019 년 개인기초연구사업 공모에 선정 되었다 . 연구과제명은「클라우드부터 엣지컴퓨팅 상에서의 Massive IoT 보안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보안 프로토콜」이다 . 연구 사업비 1 억 3 천 7 백만 원으로 2022 년 2 월까지 과제가 진행된다 .

이번 과제는 5G(5generation) 와 같은 대규모 통신망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IoT 단말들이 서로 간 끊기지 않고 원활한 통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연구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각 IoT 단말들이 생성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며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에 최적화된 보안 프로토콜 결과물도 함께 제시하게 된다 .

박 교수는 "본격적인 5G 시대가 필요로 하는 최상의 기술 개발에 컴소학과 학우들과 함께 참여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 성과물들이 현 사회에 잘 쓰이도록 열정을 다할 것 " 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연구지원사업에는 전국 대학 , 관련 연구소 , 대형의료기관 등 주요 연구자들이 지원하였으며 1713 건이 선정 되었다 .

이번 연구에는 우리대학의 DAN 연구소 (Data Analysis & Networking Lab) 소속 6 명 학우가 참여한다 . DAN 연구소는 그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과 MOU 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DAN 의 연구결과물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병원 측을 크게 고무시킨 실적이 있다 .

## 김성호 ( 사복 ) 교수 , 한국여성재단 연구 수주

###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 연구비 2 천만 원

▲ 김성호 교수

김성호 ( 사복 ) 교수가 한국여성재단이 공모한 '2019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 ' 의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 주제는 " 너의 꽃이 되고 싶어 " 이다 . 11 월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본교 방진희 겸임교수와 배영미 ( 공감과 소통 ) 대표 , 이재모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문 박아론 강사가 프로그램을 이끈다 . 또한 사회복지학과와 영유아보육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보조강사와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

이번 과제는 공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25 가정 ( 약 100 명 ) 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해 양가와 외가와의 가족소통 및 자녀와 부부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김 교수는 본 사업과 연구를 통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역량강화 및 자조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선발된 가정들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캠프활동 등을 통해 가족 간 응집력과 친밀감을 높여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김 교수는 "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의 현황을 고려할 때 , 이제는 생존이나 적응의 단계를 넘어서 자발적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기 " 이다 . " 이주여성의 ' 적응 ' 에 초점이 맞춰진 다문화 정책 보다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와 이해를 강조하는 상호문화능력 (Intercultural Competence) 이 요구된다 " 는 견해를 밝혔다 .

## 신대원 '제 5 회 성경주해세미나' 전도서 중심 , 6 월 10 일 로고스홀

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목회자를 위한 ' 제 5 회 성경주해세미나 ' 가 10 일 ( 월 ) 오후 1 시 ~6 시까지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진행된다 . 서울 동북권과 경기북부권 지역 목회자에게 성경주해의 정석을 통해 목회 방향에 새로운 기회를 넣어주기 위해서다 . 전도서 내용으로 주해 설교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본교 김정원 교수 ( 구약학 ) 가 ' 코헬렛의 고민 그리고 그가 찾은 지혜 ' 를 제목으로 말씀을 펼쳐간다 . 이밖에 김남준 ( 열린교회 담임 ) 목사가 ' 불망 ( 不忘 ) 의 감화력 , 전도서 12:9~11' 를 준비하였으며 류호준 교수 '( 백석대학교 대학원 ) 의 ' 인생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 를 주제로 심도있는 내용을 전하게 된다 .

현장등록 ( 회비 25,000) 가능하다 . 문의 950-5458

## 이병철 목사 , 학교발전기금 1 백만 원 후원

### 다음세대의 통일의식 확산에 헌신

▲ 강우정 총장이 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

춘천 주향교회 이병철 (37 회 ) 목사가 10 일 강우정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 1 백만 원을 전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었다 . 그는 "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병을 양성해온 모교에 항상 큰 자긍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로 참여하겠다 " 고 밝혔다 .

이 목사의 초청으로 이날 금요철야기도회에 참석한 강우정 총장과 김은호 부총장은 학교소개와 말씀 선포로 성도들과 접점의 시간을 가졌다 .

이병철 목사는 복음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구국기도회에서 활약 중이며 청소년뷰빌리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 다음세대의 통일의식 확산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는 춘천 소양 1 교 우두동에 소재한다 .

##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한 것”

### 장석교회 이 모 집사 3 백만 원 승강기 후원

장석교회 이 모 집사가 승강기 교체비용 3 백만 원을 송금해 왔다 . 이 집사는 얼마 전 삼일교회 다니는 친한 친구로부터 " 성서대학교 승강기 교체에 도움이 필요하다 " 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학교를 잘 몰라서 그 말은 금방 잊고 말았다 . 그 후 일주일쯤 흘렀을까 . 갑자기 친구가 들려준 그 때의 말이 되살아나더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 " 왜 이러지 ? 이게 뭘까 !.."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 기도에 기도를 거듭한 끝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다고 .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도 자녀들과 함께 3 백만 원을 마련하고 성서대학교회 최정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뜻을 전했다 . "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한 것 " 이라는 목소리에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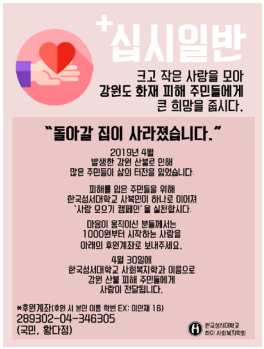
### 승강기 교체 기금 모금 현황

| | |
|---|---|
| 이OO(장석교회 집사) | 3,000,000 |
| 학부모회(장인순 회장) | 1,000,000 |
| 유수연(도서관) | 510,000 |

| | |
|---|---|
| 합계(2019.5.1~2019.5.31) | 4,510,000 |
| 누계(2018.12.1~2019.5.31/약정액 포함) | 187,353,555 |

## “우리 대학 사복인들의 선한 의지”

### 하이학회 , 고성 산불 이재민 성금 전달




▲ 성금 모금 포스터

사복 하이학회 ( 회장 이인재 ) 가 지난 4 월 초순경 강원도 강릉 , 동해지역 산불화재 피해 주민 돕기 모금활동을 펼쳐서 모금한 후원금 73 만원을 전국구호협회에 전달하였다 .

이인재 학회장은 "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우리 대학 사복인들의 선한 의지가 정성스럽게 반영된 것이다 . 후원에 기꺼이 동참해 준 동문 선배들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 고 전했다 .

지난 4 월 4 일 발생한 강원도 강릉일대 지역의 산불피해 뉴스를 접한 학회원들은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을 돕자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다 . 논의를 거쳐 동문과 재학생 대상으로 최소 1 천 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하고 취지에 동참해 줄 것을 신속히 요청했다 . 학회원들은 교내 곳곳에 포스터 부착과 동문 선배에게는 페북과 문자발송 등으로 2 주간 모금에 나섰는데 70 여명이 호응해 왔다 .

## 교육수요자 설문지 새롭게 개발

### 최선희 교수 , 우리대학 교육목적의 관점 반영

▲ 최선희 교수

우리대학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의 틀이 새롭게 개발 된다 . 그동안 사용하던 만족도 조사는 설문 문항이 K-NSSE( 학부교육실태 조사 ) 와 유사 ,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참가자들의 불평이 적지 않았다 .

개발팀의 총괄은 최선희 교수 ( 사회복지학과 , 책임연구원 ) 가 담당하며 위원에는 김정원 ( 영보 ) 교수와 김인화 평가감사실장 , 양희정 사무관리팀장이 참여하며 교학팀의 이소연 , 유다운 직원과 전규환 ( 컴소 3) 학우가 학생대표로 합류한다 .

그동안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문항이 일반대학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대학의 실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이번 사업은 우리대학 교육목적의 관점에서 교육만족도와 교육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교육수요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 또 만족하고 있는지를 좀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다 .

설문지는 7 월 말까지 교육과정 , 교육환경 , 학생지원 , 행정지원 및 대학이미지 중심으로 4 종이 개발되며 설문조사는 10 월경 온 • 오프에서 함께 이뤄진다 .

## 5 일간의 교육부 회계감사 잘 마쳐

### 법인 , 산학협력단 지적사항 ‘무’

우리대학이 교육부로부터 5 월 8 일부터 14 일까지 5 일간 회계 감사를 받았다 . 감사 대상은 학교법인 , 학교 , 산학협력단이었다 . 교육부에서는 감사반장과 3 명의 위원이 감사에 임했으며 예산의 수립부터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 여부를 학교규정 및 사립학교 회계규칙 등에 따라 샅샅이 살폈다 .

감사위원들은 5 일간의 감사를 마친 후 중대한 오류나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7 가지의 시정사항을 내 놓았다 . 법인과 산학협력단은 그나마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 감사에 임했던 우리 대학 관계자들도 마음을 졸였지만 잘 마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교육부는 이번 회계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7 월 중 통보해 준다 .

이번 감사 전반을 지휘해 온 김중완 행정본부장은 " 우리 대학이 외부 감사를 통해 주를 드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을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 " 라고 말했다 .

**총장의 편지**
총장 강우정

## 휴학과 자퇴

어느 날 채플에서 간증을 맡은 학우가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휴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상 앞에 앉아 있던 총장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폭소가 터졌지요. 건장한 체구의 학우였지만 귀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금은 머쓱한 표정으로 보아 총장이 얼마나 간절하게 학우들이 휴학, 자퇴하지 않기를 알고는 있구나라며 위로를 삼았습니다.

휴학은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학교에 보내실 때 4년 동안 충실히 학업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학업은 주업(主業, 주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 4년 동안 학업이 모든 일에 우선 합니다.

둘째, 휴학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연속성이 중요한 법입니다. 휴학하였다 복학하면 기초가 흔들리고 공부하는 생활 패턴도 흐트러집니다. 또 돌아와서는 신입 때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셋째는 대학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모두 국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끝없이 추락합니다. 우리 대학도 예외가 아니지요. 교육부 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학생충원율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75점 만점에 10점(신입생충원율 4점, 재학생충원율 6점)으로 여러 지표중 제일 큰 비중입니다.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률이 불과 4점인 것과 비교하면 학생충원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우리 휴학율은 16년 23.04%, 17년 20.15%, 18년 16.55%이고 중도탈락자(자퇴)는 16년 4.37%, 17년 5.65%, 18년 6.70%입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수도권 대학의 평균 휴학율이 25.4%이고 자퇴율이 4.2%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휴학 후 복학일자에 돌아오는 학우는 약 50%에 불과합니다. 20%는 이런 저런 이유로 휴학을 연장하고 10%는 자퇴하고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 됩니다. 휴학은 학업포기의 길로 가는 초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우들의 휴학 사유는 다양하고 눈물겨울 때도 많습니다. 학우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외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꼭 이겨야 합니다.

여행, 어학연수 등은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주를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후배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4년을 같이 가는 전통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원 컬럼**
정은상 직원(대학원 교학팀)

## 행복의 시선

얼마 전 퇴근하는데 비가 내려서 발걸음을 서둘렀다. 집으로 가는 길목 끝 지점쯤에 할머니 한 분이 나물을 팔고 있다.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그날따라 속마음에서 안 된다며 나를 흔들었다. 고민 끝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 나물 두 가지를 샀다. 궂은 날씨인데도 할머니는 의외로 환한 표정이었다. "날이 추우니 이런 날은 그만 일찍 들어가시라"고 말했더니, "비 오는 게 좋고 사람 구경하는 게 큰 행복"이라고 답한다. 아니 ...? 의외였다. 행색은 연약해 보였으나 뭔가 내면이 꽉 들어찬 분 같았다. 내리는 비가 낙(樂)이고 사람을 보는 게 행복이라니 ... 시선에 따라 어려움도 행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 준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나는 그 기억을 계기로 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았다. 최근에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지? 그 기운을 적용해보고 싶어졌다. 지난 달 2018년도 성과평가 1위 직원으로 선정 된 게 떠올랐다. 단 한 번도 1위를 탐내고 일 한 적 없다. 주어진 일에 집중 했을 뿐이다.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임했다. 분명 과분하고 큰 상(賞). 나는 모두에게 감사했다. 일상의 수고가 쌓여진 상이었고 이를 알아준 것 같아 기뻤다. 더욱 충성하겠노라며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의 벅찬 감격과 다짐을 내 삶속에 다시 풀어냈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행복한 시선으로 들어오는 게 확 느껴졌다.

저술가 파올로 코엘료는 말하였다.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의 일상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행복과 감사 그 자체다. 결과를 쫓으려 하기보다 주어진 일상 그 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감사의 시선이 일상위에서 조금씩 쌓여갈 때 내 행복의 꽃도 피어나지 않을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시편 128편 2절

**교수 컬럼**
장현진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 백일 축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절, 제헌절과 같은 국가적인 날에서부터 생일,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날까지 우리는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일로 정해 기억합니다.

우리가 맞는 기념일 중에 흥미로운 날이 있습니다. 바로 백일입니다. 백일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기념일이면서 일생에 단 한번만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념일이 해마다 정해진 날짜를 기리는 데 반해 백일은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맞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왜 백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게 되었을까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 영아사망률이 높던 시절, 아기가 무사히 자란 것을 대견히 여기며 축하해준 것에서 백일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백일이 아기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아기는 백일동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누워만 있던 아기는 손,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 조금씩 배워갑니다. 또한 울기만 하던 아기는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갑니다. 아기에게 백일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낯선 세계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백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아기가 세상에 무사히 첫 발을 내딛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상황도 지금처럼 잘 이겨낼 것을 응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힘을 기르는 시간 백일. 우리에게도 이 백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신임 교수님들과 1 학년, 편입생 학우들이 성서인으로 백일을 맞았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자란 것을 대견히 여기며 백일을 축하하였듯이, 한국성서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서인으로 백일을 함께 보낸 동료 교수님, 학우들에게 백일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외래교수 컬럼**
이진희 교수( 현대사회문제 )

## "그대 이름은 새벽이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 시편 110:3)"

시편 110 편에서 다윗은 청년을 가리켜 "새벽이슬"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왜 청년의 때를 새벽이슬이라 했을까요? 새벽이슬의 사전적 정의에는 "날이 샐 무렵 혹은 날이 밝을 무렵에 내리는 이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슬은 식물의 생육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기온차가 클수록 이슬의 양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은 학업과 진로 그리고 이성교제와 결혼 등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20 대 청년의 때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과 같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슬은 강수량이 부족하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 농작물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즉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때는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기임을 깨달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은 지금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복된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슬이 맺힌 후에는 반드시 곧 날이 밝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에 맺힌 이슬은 곧 아침이 찾아오는 전 단계임을 알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지나고 축복의 때를 맞이하여, 찬란한 햇빛을 곧 보게 될 거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차가 크면 맺혀지는 이슬의 양이 많아지듯,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시점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거름이요, 원동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한국성서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벽이슬"입니다. 청년의 때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 이 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기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 카페에 앉으면

야외 카페에 앉으면 보이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월의 햇살이 부는 바람과 함께 제 몸의 반은 따뜻함에 남은 반은 그늘 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늘의 어둠을 조금씩 제거해 줍니다. 그늘에 있다고 춥지 않고 햇살 속에 있다고 뜨겁지 않은 이유는 부는 바람 때문일 겁니다. 햇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알루미늄 손잡이를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눈으로 반사되고 작아진 동공의 시각 속에 내가 봐왔던 세상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 줍니다. 쏟아지는 햇살은 마술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생동감이 진실이 아닌 느낌일지라도 진실보다 느낌에 표를 던질 것 같은 오후입니다.

아무리 봐도 코코스 홀 입구의 늘어선 벚꽃의 아름다움보다 그 나무 아래 봄바람에 흩날리는 스카프를 한 여학생의 꽃무늬 원피스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강의실에서는 처진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어깨 위로 걸쳐진 색들이 햇살 아래서 다들 부활하는 것처럼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이런 햇살 아래서 검은색은 그 무게감을 상실해가는 것을 봅니다. 자주색과 핑크 그리고 흰색이 그 무게감을 대신해서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살이 죽어버린 것도 살릴 기세로 달려옵니다.

아, 봄입니다.

나뭇가지 위로 꽃은 피워냈지만, 그 꽃 아래 굽어진 나무들은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겨우내 메말라 버린 나무 둥지가 물을 머금고 둥지와 둥지 사이에 공간을 아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물에서 올라오는 안개처럼 공간이 물에 젖어 있습니다. 굽어진 나무 사이로 전기등과 곧은 철 기둥이 보이지만, 시선은 곧은 철 기둥이 아닌 굽어진 나무 등에 가 있습니다. 아마도 곧게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상황과 맞게 적절히 굽어진 자연의 등 앞에 풀어지나 봅니다. 곧은 것보다 굽은 게 아름다울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카페에서 나오는 원두커피의 향이 그 굽어진 등 사이로 풍겨나가면 새삼 제가 고급 진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의 된장국처럼 미국에서 배운 중급의 아메리카노가 그립습니다. 햇살 아래 뚜껑을 열면 가을색을 띤 거품과 그 거품 아래서 풍겨나는 진한 향과 창밖에서 흔들거리며 손을 내밀어주던 나뭇잎들의 그림자까지…

이럴 때면 야외 카페는 저의 또 다른 교회가 됩니다. 바람 햇살 그리고 그 속의 풍경이 그의 손길이 되는 현장입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9

### 어떤 경우 _ 이문재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도 등호와 부등호가 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생각이 크거나(〉) 작거나(〈) 같을(=) 수 있으므로.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상실감에 먹지도 자지도 못할 때, "네가 내겐 세상 전부야!" 속히 일어나기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 이제, 세상이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무시하여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전부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어린이집

▲ 영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꽃습자지 방에서 형태를 탐색하고 있다.

## 영아반 가족의 날 행사!

영아반은 11 일 어린이집과 잔디밭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봄을 상징하는 '꽃'을 주제로 꽃과 관련된 환경구성과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영아들은 탐색 방에서 꽃 습자지로 나무에 붙이거나 구상을 달리해보는 과정에 열심을 내었고 요리 방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꽃 샌드위치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활동을 가졌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공 바구니에 넣기, 타요 버스 타기, 유니바 넘기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도 참여하였고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내가 만든 꽃 샌드위치 도시락 먹기로 맛있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가족과 어린이집이 서로서로 협력을 통해 영유아가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까지 경험토록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 **기쁨반 한송이 교사**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어르신들이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 '2019 년 나의 행복한 기억 찾기'

인지 자극을 위한 원예활동으로 어르신 기능과 기억력 유지를 도와 줄 원예활동 '푸드카빙'이 2 일 진행되었다. 이번 수업은 대한카빙교육원의 원장과 보조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원예활동은 과일과 야채를 이용해 각종 동물과 일상용품을 제작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복지관 안에 자리한 어르신들은 백조, 맷돌, 주사위와 넥타이, 나뭇잎 등 주변에서 자주 보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열정을 쏟았다. 완성된 작품을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하고 격려를 얻기도 하였다.

어르신의 인지 자극을 위해 도입한 이번 수업은 하반기에 다시 진행시킬 예정이다. 10 월 어르신의 날을 기념해 30~50 명의 어르신과 함께 작품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복지서비스팀 김은지** ]

꿈빛어린이집

▲ 인형극을 관람하며 올바른 양치질에 대해 배우고 있다.

## '양치질을 배웠어요'

꿈빛어린이집 만 2 세, 3 세 영유아들은 15 일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손인형극을 관람하였다. '양치질이 싫은 깡총이와 악어아저씨' 제목으로 양치질을 싫어한 토끼에게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알려주는 인형극이다. 인형극 관람 후 노래에 맞춰 모형칫솔로 바른 양치방법을 따라하고, 까만 이를 깨끗이 닦는 활동까지 참여했다.

인형극을 관람한 유아들은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토끼처럼 충치가 생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열심히 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평소 칫솔과 치약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양치를 왜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영유아에게 양치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배우게 해 준 유익한 시간 되었다. [ **민들레반 교사 김은솔** ]

성서대학교회

▲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축하 찬양을 부르는 어린이들

## 어린이 주일

지난 5 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하였다. 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영아, 유아, 유치, 초등 1, 2, 3 부가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송, 연합찬양 등을 정성껏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12 일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 65 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 대접하였다. 연합전도회의 헌신과 청소년 1, 2 부 학생들의 진심을 담은 봉사가 더해져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

춘계부흥성회 강사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를 모시고 5 월 15 일~17 일까지 다섯 번의 집회를 가졌다. '연단', '회개', '전도', '인생', '기도의 목적' 등 5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도전받는 시간이었다. [ **서 욱 목사** ]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가족들이 함께 대형줄넘기 놀이를 즐기고 있다.

## '우리는 한 가족' 상계백병원어린이집 가족운동회

지난 25 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상계백병원어린이집 가족운동회'를 진행하였다. 사전놀이로 에어바운스, 비눗방울 놀이, 타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등으로 먼저 열기를 끌어올렸다. 2 부 운동회에서는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등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꽃가마 릴레이, 가족댄스타임, 릴레이달리기 등으로 가족을 응원하고 협동심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서로를 안아주며 '사랑해, 고마워'와 같은 따뜻한 말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부모들은 "바쁜 일상이지만 가족들과 함께여서 즐거웠고 서로가 힐링과 감사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 **푸른반 이수현 교사**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왕의 숲 태능에서 유아들이 스티커 놀이에 열중 중이다.

## 왕의 숲 태릉, 봄의 숲에서 놀자!

노원구가 주최하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왕의 숲 태릉, 봄의 숲에서 놀자'가 지난 22 일부터 24 일까지 사흘간 2,000 여명의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왕릉 태릉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노원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릉을 직접 느끼고 싱그런 봄의 자연을 경험하도록 기획된 인기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는 '나무 징검다리 건너기', '씨앗주머니 던지기', '태릉단청 배지 만들기', '나비피리 만들기'와 '나비 날개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비가 되어요'등이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노원의 영유아와 부모들은 태릉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태릉의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운 봄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 **보육전문요원 임지혜** ]

상계5동어린이집

▲ 체육대회에서 영유들이 퍼즐맞추기 놀이를 즐기고 있다.

## 지역민과 '신바람 체육대회'

지난 11 일 상계 5 동 주민센터주최가 개최하는 '신바람 체육대회'에 학부모와 영유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상계 5 동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지역사회기관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는데 게임 활동과 각종 먹거리 등이 제공되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23 가정이 참여해 게임 활동을 즐기며 가족간 단합의식도 함께 높여갔다. 주민 센터가 준비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누며 같은 지역에 속한 가족의 동질감까지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함께 즐겨서 좋았고 어린이집 가족이 한 팀으로 서로 화합하는 걸 경험할 수 기뻤다"라고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샛별반 장나혜 교사** ]

늘사랑어린이집

▲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담아 예쁘게 절을 하고 있는 유아들

##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 월을 맞아 아이들이 8 일 수락리버시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멋진 공연과 카네이션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선물하였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방문한 아이들의 합창과 율동에 웃음과 박수를 치며 적극적으로 반겨주었다. 함께 준비해 간 '사랑의 국수'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어르신들의 음식 드시는 걸 보던 아이들도 더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이번 경로당 방문을 통해 1, 3 세대의 교류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자세와 경로효친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지역 내 세대 간 교류 연계로 '함께하면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행복한반 조유진 교사** ]

충무어린이집

▲ 어르신에게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는 유아들

## 감사의 마음을 카네이션에 담아!

지난 7 일 충무어린이집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당을 방문,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의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에 들어서서 밝은 목소리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정성껏 준비해 온 카네이션을 두 손으로 전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다시 한 번 인사하였다. 유아들은 곧바로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준비한 노래까지 예쁜 표정과 목소리에 담아 불러 드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좋은 덕담을 해줬는데 훈훈한 분위기가 경로당 안에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이번 어버이날이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며 어른공경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유슬기 교사** ]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4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 | | | |
|---|---|---|---|
|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 880만원(운영) | 강우정.강진(총장) | 100만원(운영) |
|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 300만원(운영) |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 100만원(장학) |
| 이OO | 300만원(운영) | 학부모회(장인순 회장) | 100만원(운영) |
|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 150만원(장학) | 이선희(사회복지대학원 8회) | 100만원(운영) |
| 주향교회(이병철 목사) | 103만원(운영) | | |

##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2구좌 정옥순

3구좌 김혜진 이병철 임보나 정난경 최하나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김지성

3구좌 유수연

**부설기관**

1구좌 차도영

3구좌 권효진 김현애 박미애 변송이 서혜란 송애솔 이다솜 장지영 정미옥

10구좌 지주나

15구좌 안미희 차 건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민이삭 박진기 이아람 정다운 무 명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권 명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 순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현정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혜인 박효빈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채엽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지영 윤솔이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경선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철 이윤정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지은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희남 전다현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인철 정지용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성현 지영환 진병원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슬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정운 허주옥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구연민 구진경 국소영 김기옥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석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재한 김정훈 김지원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문홍 박성준 박재송 배혜인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성종 정주영 조성진 주영덕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하지혜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고하은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동교 김동원 김예린 김우선 김은정 김종숙 김지애 김태영 김하신 김혜진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미나 설보경 신은숙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유예진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예은 이예지 이은정 이주연 이혜민

## 기부자 명단

임보나 장영훈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난경 정선희 정슬기
정재연 최광희 최소린 한보미
홍석화 황영숙 황예린

4만원 김중재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아름

5만원 김연수 김종남 김진경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안선례 양원석
이부호 전은진 조연정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6만원 이재국 정동주

7만원 임연식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진만 남영란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신호정
장명헌 정 완

11만원 유선미

20만원 남정부

31만원 박형택

40만원 국용환

100만원 이선희 이례장학

###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경남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선경 김양순 김윤옥 김은이
김창현 김혜미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안소연 안양희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이명희 이성란 이성령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전용숙 정창금 최상모
최인호 최진석 홍경희

2만원 김명숙 김애라 김현숙 서성식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전옥순
정해숙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경식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김형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이한빈 전영준 정미영 허용철

8만4천원 강하늘

10만원 서병석 이상학

###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고성산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유진 김은실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호섭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보미 정은상 조아라
조형섭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세진 김인화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장길정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미숙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유다운 이소연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4만원 김덕원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장정순 전영천 최사랑

6만원 양희정 이성아 임환석

7만원 이광삼

9만원 권경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박성환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1만원 김중완 이복남 최지은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희수

18만원 유수연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안정선
이강동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김은호 최선희

50만원 구광면

100만원 강우정.강 진

###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허성보 호한나

2만원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선화 김수진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박미애
박선경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임희주 장나혜
장수진 장지영 정미옥 탁지혜
한송이

5만원 강진아 박미선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이인경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정나나 차 건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3만원 이은지

###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 비전교회

3만원 장석원

###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10만원 삼일성서교회

### 서문교회

1만원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2만원 오활란

### 성서대학교회

5천원 김병철 박선구 박진석 백순옥
안숙진 임용택 최진두

1만원 강경혜 강선영 김겸일 김상은
김숙재 김애숙 김은순 김윤선
김인영 김인자 김정숙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혜옥 김희자 남지영
민영빈 박경상 박영신 박용숙
박이숙 박주형 박천순 백향원
손진희 송인희 심애경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윤아
용정자 유상호 윤영원 이가은
이관영 이길우 이노선 이대영
이대한 이선정 이숙영 이영진
이영희 이은영 이정민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장근문
전광심 전옥순 전하준 전해성
정나영 정도유 정선희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명순 최미숙 최용석
최정자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황서린

1만5천원 김진숙 오정연

2만원 강유진 권정숙 권정화 김덕현
김사천 김순자 김영희 류 강
박인숙 변경선 성윤선 신재은
오경모 유정선 이대우 이주현
장홍림 정갑순 정명수 정승연
조성민 최영태 홍기순

2만5천원 권경만 김동준 김미선 김은미
이윤봉

3만원 김동수 김영헌 김현석 방미경
서 욱 이은실 최대만 최순남

3만5천원 하명란

4만원 강규성 김민자 김봉춘 박온유
양태환 이명순 이승림

5만원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김웅기
김일선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한진호

5만5천원 송형기

10만원 최정권

11만원 장병호

880만원 성서대학교회

###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정유광
홍성호

2만원 김일섭 반요셉

###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103만원 주향교회

###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김옥자

5만원 김종구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무 명 한상욱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15만원 김광석

###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2만원 김양례

###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승애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관헌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이환희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이수진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한현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18만원 무 명

30만원 박순정

300만원 이정님

###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
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
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동신자원/성복중앙
교회/열방교회/월계성서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금곡광염교
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
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
무교회/태광성서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도서관/다드림교회/상일교회/
일동성서교회/천성교회/충은
교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

10만원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이
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
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
만나교회/상록교회/오감발달
연구소

13만7천500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새중앙교회/생명
샘교회(성주)/서부중앙교회

30만원 구리성광교회/노아인터내셔
날/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
회

47만3천원 녹수교회

100만원 학부모회

150만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300만원 경성교회

소계(20190421~20190520)
54,337,500

누계(20190301~20190520)
206,908,753